

초등학생 작문 실태 분석 - 낱말 형태 오류를 중심으로

이창근*

Error Analysis of Writ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ng-Keun Lee *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낱말의 형태적 오류를 분석한 글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학생들의 글 분량을 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이 사용한 낱말 수는 모두 14,532개였고, 평균은 145.3개였다. 문장 수는 1903개였고 평균은 19.0개였다. 문장당 사용된 낱말은 평균 7.6개였다. 둘째, 연구 대상 100명 중 31명만이 오류가 없었고 69명은 하나 이상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초 문식성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낱말의 형태 오류는 준말(33.09%), 어미(27.70%), 기타 오류(19.78%), 어간(19.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 집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지도 내용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작문 분석, 오류 분석, 맞춤법 오류, 문법교육, 맞춤법

Abstract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form of the word appeared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riting erro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4532 words appeared, the average is 145.3. And 1903 sentences, and average 19.0 papers. On average, one sentence have consisted of 7.6 word. Second, the 69 people out of 100 had an error. This is serious. Because this study contains very basic contents. Third, the order of errors are abbreviations(33.09%), endings(27.70%), etc(19.78%), stems(19.4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vise a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elect the contents of elementary spelling teaching.

Key Words : writing analysis, error analysis, orthography error, grammar education, orthography

1. 서론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주로 말과 글로 의사소통한다. 그 중에서 글은 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글을 쓸 때에 적용되는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기 규칙인 맞춤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맞춤법은 1988년에 고시된(문교부 고시 제 88-1호) 것이다.[4]

낱말을 규범에 맞게 바르게 쓰는 것은 기초문식성에 해당한다. 국어교육학사전에는 문식성을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5].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소를 음소로, 음소

를 자소로 바꾸는 것을 들고 있다. 즉 글자를 바르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학습 내용은 저학년에서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는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는 내용 성취 기준을 1-2학년 군에 제시하고 있으며[3],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1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에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2학년 문법 성취 기준에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와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가 제시되어 있다[2]. 이로 보아 낱말

본 논문은 2010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논문접수: 2013년 2월 27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3월 20일, 확정일: 2013년 3월 20일

을 바르게 쓰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완성되어야 하는 기초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낱말을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쓰기의 기초기능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의 글에서도 형태적인 면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텔레비전 자막에도 오류가 있으며, 온라인 통신 상에서 이루어지는 표기에는 오류가 아주 많은 편이다.

연구물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문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그 대상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유경(2010)은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6], 윤상원(200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7], 차재은(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경(2010)은 연구 대상이 일반 학생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차재은(2006)과 윤상원(2001)의 내용에도 낱말의 형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완성되어야 할 기초 기능이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에게서도 오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류 실태를 분석하여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6학년을 대상으로 낱말 형태 오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작문 상에 나타난 오류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은 대부분 오류가 나타나는 낱말의 예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윤상원(2001), 김은전(1986)[1], 김주필(1990)[9] 등). 이런 방식의 연구도 가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낱말이 어느 정도 빈도로 오류가 나타나는지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오류를 수치화한 연구로는 차재은(2006)과 유경(2010)이 있다. 차재은(200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경(2010)은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류를 수치화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쓴 작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낱말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오류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맞춤법 관련 지도 내용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N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 42명과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 58명, 합계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구분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필로 쓴 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글자 판독이 아주 어려운 글은 제외하였다.

2.2 연구 절차

2.2.1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6학년 학생들이 쓴 학교생활에 관해 소개하는 글이다. 학교생활은 학생들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며 학습자의 지식 정도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유형이라 판단된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12년 12월이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는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므로 학생들이 글을 쓰기 위한 소재가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2.2 자료 분석

첫째, 학생들이 쓴 자료에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N 초등학교의 자료는 n으로, D 초등학교의 자료는 d로 부여하였다. 한 학생의 글에서 발견되는 동일 형태의 오류는 출현 횟수만큼의 빈도수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글의 내용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형태 오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형태 오류 중에서 띄어쓰기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원고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글을 쓰도록 하여서 띄어쓰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류 분석은 연구자가 학생들의 글을 직접 읽으면서 발견되는 오류에 표시를 하였다.¹⁾ 학생들이 쓴 글을 모두 ‘한글2007(한글과 컴퓨터사)’에 직접 타이핑하여 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글에 사용된 낱말의 수²⁾와 문장의 수를 알아보았다. 타이핑할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여 타이핑 하였다.

셋째, 오류 분석은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 이 중 N초등학교 28명의 자료는 컴퓨터에 타이핑하여 출력한 자료를 대상으로 오류 분석을 하였고, 문장 수와 낱말 수 계산은 연구자가 띄어쓰기를 교정한 파일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2) 한글 맞춤법에서는 조사를 별개의 낱말로 보지만, 한글 2007 프로그램에서는 체언에 결합된 상태를 하나의 낱말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의 낱말의 수는 후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제공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 배움터(<http://urimal.cs.pusan.ac.kr/>)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의 도움을 받았다. 오류 분류는 한글 맞춤법의 항목을 참고하여 ‘준말 오류’, ‘어간 오류’, ‘어미 오류’, ‘기타 오류³⁾’로 분류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글의 분량

글의 분량은 글 쓸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내용이 많다는 것은 주제에 대하여 쓸 항목이 많다는 의미도 있고, 한 주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썼다는 의미도 있다. 본 연구에서 글의 분량을 알아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글 쓸 공간을 다 채우라는 지시를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편이다. 학생들 또한 제시된 공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교사에게 묻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와 같은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학년에서 해당 유형의 글의 길이를 어느 정도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오류를 나타낸 낱말의 수가 전체 글에서 어느 정도인지 양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글의 길이가 길면 오류 낱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글의 길이와 오류 낱말 수는 반드시 비례 관계인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쓰기 지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자료의 분량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글의 분량⁴⁾

항목		N초등	D초등	전체
낱말 수	합계	7775	6757	14532
	평균	185.1	116.5	145.3
문장 수	합계	986	917	1903
	평균	23.5	15.8	19.0
문장 당 낱말 수	평균	7.9	7.4	7.6

3) 불변어에는 체언, 접사, 조사 등이 포함된다.

4)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동일한 낱말, 문장이 반복된 경우도 각각 1회로 처리함.

6) 두 학교간의 비교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원인 분석은 하지 않는다.

위의 <표 3.1>을 보면 100명의 학생이 14,532개의 낱말을 사용했으며, 1,903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⁵⁾ 한 문장당 사용된 낱말 수의 평균은 7.6개였다. N초등학교와 D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낱말은 평균 68.6개가 차이가 나고, 문장은 평균 7.7개가 차이 난다.⁶⁾

3.2 오류 분석

3.2.1 전체 오류 현황

자료의 오류를 검토한 결과 형태 오류를 준말, 어간, 어미, 기타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전체 오류 현황

	항목	합계	오류 율(%)
형태 오류	준말	92.0	33.09
	어간	54.0	19.42
	어미	77.0	27.70
	기타	55.0	19.78
	오류계	278	99.99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분석 대상에 사용된 총 낱말은 14,532개이며 이 중 278개의 오류가 있었다. 학생들이 사용한 낱말에서 평균 1.91%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 학생은 12.0%(사용 낱말 수 216개, 오류 낱말 수 26개)이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학생은 31명(31%)이었다. 전체 학생 중 69%가 작문에서 하나 이상의 낱말 형태 오류를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가 기초 문식성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면 이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오류는 준말(33.09%), 어미(27.70%), 기타(19.78%), 어간(19.42%) 순으로 나타났다.

3.2.2 각 항목별 오류 내용

3.2.2.1 준말 오류

준말에서 한 명 이상이 오류를 보인 낱말은 ‘선생님’, ‘되다’, ‘않다/아니’, ‘ㅣ+었-’, ‘아이’, ‘ㅏ+어’, ‘ㅑ+’-았’, ‘ㅣ’+’-있’, ‘기’+’-였’, ‘-지’+’않-’, ‘그렇지만’, ‘조금’의 준말 형태이다. 오류 형태와 인원, 빈도는 <표 3.3>과 같다.

〈표 3.3〉 준말 주요 오류

해당 낱말	오류 형태	오류 인원	빈도
선생님	‘쌤’, ‘쌤’	8	16
되다	‘되서’, ‘됐어요’, ‘돼있-’, ‘됐는데’, ‘돼더-’ 등	12	14
아이	‘애들(애들)’, ‘에(애)’, ‘제는(제는)’, ‘개가(개가)’ 등	8	10
않다/아니	‘않 잊었지’, ‘않하고’, ‘가지만 안았다면’ 등	8	9
‘-ㅣ’+’-어/-었’	‘주셨어’, ‘땀아 졌어요’, ‘땀아 졌어요’, ‘겻(졌)습니다’, ‘나눠줘(겨) 있다’, ‘놀러서(놀러서)’ 등	5	8
‘-ㅏ’+’-어(-었)’	‘알려조(줘)’, ‘먼가(뭔가)’, ‘켰-체조도 컸는데(켰)’, ‘띄었어(띄웠어)’ 졌어요(켰어요) 등	5	6
‘-ㅓ’+’-았’	‘갸다(갔다)’, ‘갸던(갔던)’, ‘탸다(탸)’, ‘탸습니다’	3	4
‘-ㅣ’+’-있’	‘재민는(재민는)’, ‘재민는(재민는)’, ‘재미(있었는데)’	3	3
‘-기’+’-었’	‘사궤다(사귀었다)’, ‘바궤서(바뀌어서)’, ‘바궤(바뀌어)’	3	3
‘-지’+’-았’	‘싫어했었자나’, ‘했었자나’, ‘관뵈었자나’	2	3
그렇지만	그치만(그렇지만)	2	2
조금	쭙	2	2

‘선생님’의 준말 형태로 ‘쌤’, ‘쌤’은 구어나 컴퓨터 통신에 많이 쓰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낱말이다.

‘되다’가 활용할 때 어미 ‘-어’나 ‘-었’이 어울리면 ‘돼-’, ‘됐-’으로 표기해야 한다[4](맞춤법 제35항 [붙임 2]). 오류의 예를 보면 ‘되서’는 ‘되어서’의 준말 형태여야 하므로 ‘돼서’가 맞고, ‘됐어요’나 ‘돼있-’은 ‘되었’의 준말의 형태여야 하므로 ‘됐-’이 바른 형태이다. ‘돼더-’는 준말이 아니므로 ‘되더-’가 바른 형태이다.

‘아이’의 준말로 바른 형태는 ‘애’이다. ‘저 아이’, ‘그 아이’의 준말은 ‘재’, ‘개’이다. 이를 ‘제’, ‘개’로 쓴 것은 평소에 이런 낱말을 정확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습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이며 보조동사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며 부사이다. ‘않 잊었지’, ‘않하고’의

경우는 ‘있다’, ‘하다’가 용언이므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정부사 ‘안’이 쓰여야 한다. ‘가지만 안았다면’의 경우는

본용언 ‘가다’를 보조하는 보조용언의 형태인 ‘않았다면’이 쓰여야 바른 형태이다.

한글 맞춤법 제35항에는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ㅓ/-기’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정하고 있다[4]. ‘알려조’는 ‘알려주어’의, ‘먼가’는 ‘무엇인가’, ‘켰는데’는 ‘추었는데’, ‘띄었어’는 ‘띄우었어’가 각각 줄어 든 것인데 올바른 표기는 각각 ‘알려줘, 뭔가, 띄웠어’이다. 또 ‘나눠줘 있다’, ‘놀러서’는 ‘나눠지어 있다’, ‘놀리어서’가 준 말이므로 ‘나눠져’, ‘놀려서’가 바른 표기이다.

‘재미있다’의 준말은 ‘재밌다’여야 한다. 또 ‘재미있+었는데’의 경우는 ‘재미있-’의 준말 ‘재밌-’에 ‘-었’이 어울린 경우이다. 그러므로 위 오류 예는 각각 ‘재민는’, ‘재미었는데’로 표기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는 ‘-ㅓ, ㅣ’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정하고 있다[4]. 그러므로 ‘갸다’, ‘갸던’, ‘탸다’, ‘탸습니다’의 경우는 각각 ‘가았다’, ‘타았다’, ‘따았습니다’가 준 경우이므로 ‘갸다’, ‘탸다’, ‘따았습니다’로 적어야 한다.

‘-기’+’-었’의 경우는 준말의 형태가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류 예에 제시된 낱말 ‘사궤다’, ‘바궤서’, ‘바궤’는 ‘사귀었다’, ‘바뀌어서’, ‘바뀌어’로 써야 한다. ‘바궤’의 경우는 ‘바꾸어’의 준말이라면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분석 자료에 쓰인 ‘바궤’는 ‘학교 운동장에 미끄럼틀같은 기구가 세걸루 바뀌 매우 깨끗해’에 제시된 낱말이다. 문장의 의미로 보아 주어가 ‘기구’가이므로 ‘바꾸어’가 바른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제39항에는 ‘-지’뒤에 ‘-았’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정하고 있다[4]. 그러므로 오류의 예인 ‘싫어했었자나’, ‘했었자나’, ‘관뵈었자나’는 각각 ‘싫어했었잖아’, ‘했었잖아’, ‘관뵈었잖아’로 표기해야 한다.

‘그렇지만’의 준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조금’의 준말은 ‘쭙’이다. ‘그치만’이나 ‘쭙’은 구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바른 표기는 아니다.

3.2.2.2 어미 오류

오류 인원이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예는 어미 ‘-았/-었-’, ‘-대/-데’, ‘-게’, ‘-려’, ‘-르’, ‘-ㄴ’, ‘-고/-구’, ‘-습니다’, ‘-러/-로’, ‘-예요’, ‘방언’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오류 형태와 오류 인원, 빈도는 <표 3.4>와 같다.

〈표 3.4〉 어미 주요 오류

해당 날말	오류 형태	오류 인원	빈도
‘-았-/엇-’	‘깍았다’, ‘좋아쓰니까’, ‘같았어요’, ‘좋았다’, ‘널얼어’, ‘설레었다’ 등	12	25
‘-(는)대/-(는)데’	‘있었는데’, ‘그런데’, ‘했는데’, ‘사용했어요’, ‘갔다 왔대’ 등	6	9
‘-게’	‘할께’, ‘할께’, ‘오게 된’ 등	8	8
‘-려고’	‘할려고’, ‘갈려고’, ‘찾을라고 등’	5	6
‘-ㄴ’	‘놀은 것’, ‘부풀었는 거, 들어 왔는 학생’, ‘주은(운)’ 등	4	5
‘-고/-구’	‘밥도먹구’, ‘갈려구’	2	2
‘-습니다’	‘없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2	2
‘-러/-로’	‘놀로’	2	2
‘-예요’	‘일인이에요’, ‘선생님이예요’	2	2
‘방언’	‘잘 나온 거’, ‘생각하른’	2	2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엇-’의 오류는 ‘-았-’을 써야할 곳에 ‘-엇-’을 쓴 경우, 받침 ‘-아-’를 쓴 경우, 국어에 없는 어미 ‘-앗’, ‘-왓’, ‘-얹’으로 쓴 경우와 형태론적 이형태를 잘못 쓴 경우 등이 있었다. 국어에 없는 어미 ‘-앗’은 ‘-았-’과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기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어에 없는 어미 ‘-얹’은 ‘-엇-’과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왓’은 앞말의 어간이 ‘ㄱ’이기 때문에 준말의 형태가 ‘ㅍ’이므로 이에 유추되어 이런 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엇-’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동사의 어간에만 결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위의 오류 예의 바른 형태는 ‘깍았다’, ‘좋았으니까’, ‘같았어요’, ‘좋았다’, ‘널었다’, ‘설레었다’이다.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엇-’의 오류를 보인 학생 수가 12명인데, 이는 전체 인원의 12%에 해당하는 높은 오류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대’의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이고 다른 하나는 ‘-(는)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둘 다 문장 종결에 쓰인다. 이에 비해 ‘-는데’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는)대’는 종결어미이므로 문장의 끝에 쓰이고,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그 뒤에 다른 말이 이

어져야 한다. ‘그런데’는 ‘그러한데’가 준 말이다. 위의 오류 예의 바른 표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했는데’, ‘사용했어요’, ‘갔다 왔대’이다.

연결어미 ‘-게’의 오류는 ‘-께’, ‘-개’, ‘-개’로 잘못 쓴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께’로 쓴 경우가 5회로 가장 많다. 이에 해당하는 날말은 ‘할께’, ‘밝히지 않을께’, ‘줄께’, ‘말할 께’이다. 이 날말들은 모두 ‘-게’ 앞에 ‘ㄹ’받침이 있어서 경우으로 발음되는 날말들이다. 발음의 영향으로 이런 표기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께’와 ‘-개’로 적은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ㅈ’와 ‘ㅊ’의 발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서 생긴 오류로 생각된다.

‘-려고’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르려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려고’의 잘못된 형태로 다루고 있다. 위의 오류 예 ‘할려고’, ‘갈려고’는 구어 습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풀이를 보면 ‘앞 절의 일을 뒤 절의 까닭이나 근거로 들을 나타 낼 때’, ‘흔히 속담과 같은 관용구를 인용하면서 ‘그 말처럼’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류 예 ‘찾을라고’는 연결어미로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의도’이므로 ‘찾으려고’로 써야 한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7항에는 ‘-(으)르려고/-(으)르라고’는 표준어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4].

‘-ㄴ’ 오류를 보인 날말들은 모두 관형어이며 시제는 과거이다. ‘-ㄴ’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형 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받침 없는 동사와 ‘ㄹ’받침을 가진 동사의 어간에 붙을 때이다. 그러므로 오류 예는 ‘놀은 것’, ‘부풀은 것’, ‘들어 온’, ‘주운’으로 써야 한다.

‘-고’는 대등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구’가 어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류 예의 날말들은 구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표기는 ‘밥도 먹고’, ‘가려고’이다.

‘-습니다’가 ‘-습니다’로 바뀐 것은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 규정부터이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에는 ‘-습니다’와 ‘-습니다’ 중 ‘-습니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오류 예의 날말은 ‘없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가 바른 표기이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에는 ‘-이에요’와 ‘-이어요’를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4]. ‘-이에요’는 표준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류 예의 날말은 ‘일 인이에요/일 인이어

요’, ‘선생님이예요/선생님이어요’로 써야 한다.

‘겨’는 ‘것이야’의 준말이므로 ‘겨야로 써야 하며, ‘생각 하든’은 ‘생각하면’으로 써야 한다. 이 오류는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명에게서만 나타난 어미 사용 오류로는 ‘-지’를 ‘-찌’로, ‘-네’를 ‘-내’로, ‘-라’를 ‘-리’로, ‘-지만’을 ‘-지 많’으로 쓴 경우 등이 있었다.

3.2.2.3 기타 오류

기타 오류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체언류, 부사, 관형사, 접사 등이 포함된다. 한 명이상에서 오류가 나타난 예와 인원, 빈도를 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기타 오류

해당 낱말	오류 형태	오류 인원	빈도
‘것’	‘잘본 것 같아’, ‘발전할꺼 같아’ 등	5	8
‘너’+조사	‘니가’ ‘너네 학교’ 등	4	6
사이시옷	‘둘쨌날’, ‘머릿속’	3	4
‘이/히’	‘다행이’, ‘충분이’	2	2

‘것’은 의존명사이다. 오류의 예는 ‘것’이므로 표기한 경우가 3회, ‘꺼’로 표기한 경우가 5회 나타났다. 바른 표기는 ‘잘 본 것 같아’, ‘발전할 것 같아.’이다.

이인칭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네가’의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니가’는 ‘네가’로 써야 한다. ‘너’의 복수형은 ‘너희’가 된다. 그러므로 ‘너네 학교’는 ‘너희 학교’로 표기해야 한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에 붙는다. ‘둘쨌날’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합성어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째날’로 표기해야 한다. ‘머릿속’은 합성어로 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행이’의 경우는 명사 ‘다행’에 접미사 ‘히’가 붙은 경우이므로 ‘다행히’가 바른 표기이다. ‘충분이’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의거 ‘충분히’로 적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한 학생의 글에서만 오류를 보인 예로는 ‘언제나(언제나)’, ‘증말(정말)’, ‘벌서(벌써)’ 등이 있었다.

3.2.2.4 어간 오류

오류 인원이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어간 오류의 예를 초성 오류, 중성 오류, 종성 오류, 기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6> 어간 주요 오류

해당 낱말	오류 형태	오류 인원	빈도
초성 오류	‘뺨(뺨)칩니다’, ‘쑤(쑤)했지만’, ‘상(상) 따(타)’, ‘짜(자)르다’ 등	5	5
중성 오류	‘제(제)작하다’, ‘햇(햇)갈리다’, ‘돼(되)어서’, ‘기(귀)여워’, ‘시(쉬)는 시간’, ‘칼(자)고’, ‘드(더)러웠다’, ‘배(배)웠어’, ‘젓(젓)어요’ 등	8	9
종성 오류	‘뺨(받)고’, ‘치고박(받)고’, ‘냥(냏)고’, ‘좀 더 냥(나)은’, ‘냏(냏)설다’, ‘갓(갓)고’, ‘갓(갓)습니다’, ‘갓(갓)이’, ‘깍(깍)었다’, ‘갈(갈)지’, ‘뺨(뺨)은’, ‘실(실)였지만’, ‘젓(젓)어요’, ‘잇(잇)어’, ‘맥(맥)없이’, ‘넌(넌)고’ 등	15	25
기타	‘뚫(뚫)었(었)던’, ‘찌(찌)어(어)진’, ‘날(난)리’, ‘기(기)달(다)리다’, ‘갑(갑)사 들어(드리)다’, ‘몰(모)르느’, ‘잘(잘)르(자)르러’, ‘이(이)뺨(뺨)졌어’ 등	12	15

위의 오류 예들을 발음이 유사한 두 낱말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도 보이고(제작/제작, 햇갈리다/햇갈리다, 배웠어/배웠어 등), 보면 평소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기여워/귀여워), 방언의 영향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잘르러/자르러, 이뺨졌어/예뺨졌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4. 결론

4.1 연구 결과 정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글 100편을 수집하여 글에 나타난 낱말의 형태 오류를 분석하였다. 기초 분석으로 글에 쓰인 낱말 수와 문장 수, 문장당 낱말 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학생들이 사용한 낱말 수는 모두 14,532개였고, 평균은 145.3개였다. 문장 수는 1903개였고 평균은 19.0개였다. 문장당 사용된 낱말은 평균 7.6개였다.

오류 분석 결과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번 이상의 오류를 보였고, 글에 사용된 낱말은 모두 14,532개이며 이 중 278개의 오류가 있었다. 오류 낱말 비율은 1.91%로 수치상으로는 적은 양이나 본 연구가 기초 문식성에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하면 높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낱말의 형태 오류를 준말 오류, 어간 오류, 어미 오류, 불변어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류는 준말(33.09%), 어미(27.70%), 기타(19.78%), 어간(19.42%)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정 학생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학생이 동일한 오류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4.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은 평균 145.3개의 날말을 사용하며, 평균 19개의 문장을 사용하는 정도의 길이로 글을 쓴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글을 쓰도록 하는 단원에 글 쓸 공간을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지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맞춤법 지도 내용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학생의 글에 나타난 오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오류에 대해 오류 정도를 수량화하였으므로 맞춤법 지도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2009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과 교과서에는 『국어 활동』이라는 보조 교과서가 새로 생겼다. 이 교과서 안에는 ‘우리말 다지기’라는 학습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는 주로 맞춤법이나 문법 학습에 관한 내용이 실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할지를 정할 때, 실제 학생들의 오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특정 학생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는 교사가 그 학생에게 맞도록 지도할 내용을 선정해야 하고, 여러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수가 적은 한계를 가진다. 작문 능력은 필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 대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 작문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날말 단위의 오류만 조사하였다. 그래서 문장 구성이나 글 전체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날말의 표기가 작문의 기초 기능으로서 중요하지만 글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넷째, 날말 수 계산에서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글을 직

접 타이핑한 결과로 계산하였다. 연구자가 타이핑할 때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또한 N초등학교 28명의 글은 타이핑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가하여 더 많은 대상, 더 많은 분석 항목, 더 많은 지역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 작문 교육이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은진(1986). 대학생들의 작문의 실태와 그 바람직한 지도방안. 선청어문 14·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2]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국어·도덕·사회. 한울사. 40. 58-59.
- [3]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14.
- [4] 문화관광부(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주)대교출판. 260.
- [6] 유경(2010). 청각장애 학생의 일기문에 나타난 쓰지 오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4호. 한국특수아동학회.
- [7] 윤상원(2001). 글쓰기에 나타난 국어 사용상의 오류 분석-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제13집. 동국어문학회.
- [8] 차재은(2006). 경기대 학생의 오류 분석. 시민인문 제 14호. 경기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9] 김주필(1990). 대학생의 작문 실태와 작문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제71집. 한국어교육학회.
- [10]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이 창 근



- 1992년 2월 :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교육학사)
- 2001년 2월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한국국원대학교 대학원(교육학 박사)
- 2007년 9월~현재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과 교수

· 관심분야 : 국어교육, 문법교육, 작문교육

· E-Mail : lck888@jnu.ac.kr